

2017년 5월 27일,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노인회관, 이현정 조사.
오원규(남, 1900년생, 구좌읍 평대리)

- 줄거리: 옛날은 먼 거리를 혼자 다니기 적적하여 개를 한 마리씩 길러 데리고 다녔다. 한 사람이 개와 함께 동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지경에 도착하자 개가 주인의 옷을 물며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곳에 구멍이 있어 개가 그곳에 빠져버렸다. 그곳이 구멍이 만장굴의 입구와도 같은 곳인데 후에 개가 그 구멍을 통하여 만장굴로 나왔다고 전하여 온다.

[제보자] 옛날은 개를 길러가지고 이제 사냥, 저, 산에 가든 여기 제주듯 말론 드르에 가든 꿩도 잇곡, 노루도 잇곡, 지달이도 잇곡. 게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이 물을 질루는 사람 게 방목해서 길루니까. 혼자 뎡기기는 뭐냐 허게 뎡은 저, 뵈고 고단 허니까 개를 하나씩 질루는 거라. 질뤄가지고 갈 때는 돌양 나가는다.

그것이 제주도 어디엔 헛더라. 그 저 가다보니까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뎡니까, 아, 못 가게 뎡게 아니고 가는데, 개가 뒤로 주인 옷을 물어가지고 다리에 옷을 물어가지고 못 가게 뎡기는 거라.

‘희한하다.’고 헛어. 그디 앓아가지고 고만히 앓아서 이제 뭐냐 허게 뎡은, 흐룻밤을 세왓는다. 개는 그리 빠져 비엿다 이거야. 거기가 굴이라. 굴로 해서 그, 만장굴론가 어디로 나왔다 이거야.

- 핵심어 : 개, 주인, 옷, 다리, 굴, 만장굴, 동물보은담